

# 김광현, NL역대 최초 4경기 연속 5이닝 3피안타 이하 달성

밀워키전 선발등판 7이닝 6탈삼진 무실점 역투 펼쳐

13일만에 복귀전...평균자책점 0.63까지 끌어내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KK' 김광현에게 쪽 빠졌다.

김광현은 15일(한국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밀러파크에서 열린 '2020 메이저리그(MLB)'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원정경기에서 선발등판, 7이닝 3피안타 3볼넷 6탈삼진 무실점 역투를 펼쳤다.

신장경색으로 인해 부상자 명단에 오르면서 13일 만에 복귀전을 치른 김광현은 완벽에 가까운 모습으로 밀워키 타자들을 돌려세웠다.

최고 구속은 92.2마일(148.4km)로 크게 빠르지는 않았지만 직구와 슬라이더의 제구가 원하는대로 이어지면서 한 점도 헌납하지 않았다.

7이닝과 6탈삼진은 김광현의 MLB 입성 후 최고 기록이다.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해 승리는 없었지만 김광현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 평균자책점은 0.83에서 0.63까지 끌어내렸다.

세인트루이스는 구단 트위터에 김광현과 포수 아디어 몰리나가 글러브를 마주하는 사진과 함께 "올해의 신인왕?"이라고 적었다. 막 MLB에 뛰어든 김광현이 기대 이상으로 활약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날 경기를 통해 김광현은 다양한 MLB 기록을 세웠다. MLB닷컴은 "김광현은 내셔널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4경기 연속 5이닝 3피안타 이하, 비자책을 기록한 첫 번째 선수가 됐다"고 소개했다.

세인트루이스 역사를 살펴봐도 길이 남을 행보다. MLB닷컴에 따르면 김광현은 1901년 이후 4경기 연속 5이닝 이상 던지면서 자책점을 내주지 않은 세 번째 선발 투수가 됐다.

뉴시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김광현이 14일(현지시간) 미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밀러 파크에서 열린 2020 메이저리그(MLB) 밀워키와의 연속경기 1차전 1회 투구하고 있다. 김광현은 6이닝 3피안타 6K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 김광현, 건강 문제에 "걱정마세요"

"몸에 자신 있어...팀 패한 것 아쉽지만 경기력은 만족스러워"

완벽한 모습으로 돌아온 'KK'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자신을 둘러싼 건강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면서 팬들을 안심시켰다.

김광현은 15일(한국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밀러파크에서 열린 '2020 메이저리그(MLB)'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원정경기에서 선발 등판, 7이닝 3피안타 3볼넷 6탈삼진 무실점 역투를 펼쳤다.

13일 만의 등판이었다. 지난 6일 극심한 복통을 호소한 김광현은 응급실로 이송됐다. 병명은 신장경색. KBO리그 시절에도 같은 이유로 치료를 받았던 터라 우려가 컸다.

정작 본인은 별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김광현은 밀워키전이 끝난 뒤 MLB닷컴에 게재

된 인터뷰에서 "걱정 안 해도 된다"면서 "몸에 자신이 있다. 정말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소개했다.

김광현은 밀워키를 상대로 자신의 건강함을 입증했다. MLB 입성 후 가장 긴 7이닝을 소화하면서 단 한 명에게도 홈을 허락하지 않았다. 6탈삼진 역시 데뷔 최고 기록이다.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해 승리투수와 연을 맺지 못했다.

김광현은 "경기력은 만족스럽다. 팀이 패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닉스 코치가) 밀워키 타자들은 몸쪽 빠른 공에 약하다고 하셨다. 그래서 그 공을 많이 던졌다"면서 "특별한 것은 없었다. 게임 플랜을 따랐을 뿐"이라면서 코칭스태프의 정확한 전력 분석을 호투의 비결로 꼽았다.

## 전 토트넘 감독 "손흥민, 왜 이적설 없는지 모르겠다"

간판 활약에도 올여름 이적설 전무

"리버풀서 땀 실력 갖춘 선수" 평가

팀 서우드 전 토트넘 홋스퍼 감독이 손흥민(28)이 과소평가 받고 있다면서 올여름 이적시장에서 언급되지 않는 것이 놀랐다고 밝혔다.

서우드 감독은 14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HITC를 통해 "손흥민은 과소평가된 선수다. 모든 팀이 그를 좋아하지만, 아무도 그의 영입엔 관심이 없다. 왜 그렇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독일 함부르크 유스에서 성장한 손흥민은

지난 2015년 레버쿠젠을 떠나 토트넘 유니폼을 입었다.

입단 초기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2016~2017시즌부터 4시즌 연속 정규리그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하며 토트넘의 간판 공격수로 자리 잡았다.

2019~2020시즌엔 정규리그 한 시즌 개인 최다 공격포인트(11골10도움, 1개)와 공식전 최다 공격포인트(18골12도움·30개)로 커리어 하이를 찍었다.

EPL뿐만 아니라 2018~2019시즌엔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맨체스터 시티 등을 상대로 골 폭풍을 몰아치며 토트넘의

시상 첫 결승 진출을 이끌기도 했다.

그런데도, 손흥민은 올여름 타 구단으로 관심으로부터 멀어져 있다.

한때 스페인 명문 레알 마드리드와 독일 강호 바이에른 뮌헨 등과 연결됐지만, 구체적인 제안이 아닌 '투머'에 그쳤다.

서우드 전 감독은 "토트넘 케인은 많은 팀의 영입 리스트에 올라 있지만, 손흥민은 아니다"라면서 "손흥민은 리버풀에서 땀 실력을 갖춘 선수다"라며 높이 평가했다.

현역 시절 토트넘에서 활약했던 서우드 전 감독은 2013년 12월부터 6개월가량 토트넘 지휘봉을 잡은 바 있다.



## 개막전부터 선수 탓한 무리뉴 감독

### 토트넘 홋스퍼 선수단 불화 조짐

에버턴전 패배 후 선수들 정신 상태 지적...몇몇 선수 반박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개막전 패배를 선수 탓으로 돌린 주제 무리뉴 토트넘 홋스퍼 감독이 발언이 선수단을 자극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트넘은 14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2021시즌 EPL 1라운드 홈 개막전에서 도미니 칼버트-레윈에 결승골을 내주며 에버턴에 0-1로 졌다.

토트넘이 정규리그 홈 경기에서 에버턴에 패한 건 2008년 11월30일(0-1패) 이후 12년 만이다.

무리뉴 감독 개인에게도 충격적인 패배였다. 2004년 첼시 지휘봉을 잡고 EPL 무대에 첫 입성한 무리뉴 감독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거치면서 총 10차례 개막전에서 9승1무로 패배가 없었다.

그런데 토트넘에서 치른 11번째 개막전에서 패배의 쓴잔을 마셨다.

무리뉴 감독은 경기 후 자칭한 듯 "선수

들의 압박이 느슨했다. 일부 선수는 정신 상태가 좋지 못했다"라고 에버턴전 패배를 선수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몇몇 선수들은 무리뉴 감독의 발언이 부당하다고 느끼며 반박했다.

영국 미리는 15일 토트넘 수비수 벤 데이비스의 인터뷰를 전하며, 선수단 내 충돌 상황을 보도했다.

데이비스 "에버턴전에서 선수들 모두 열심히 했다. 동료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확신한다. 노력 부족이 패배로 이어졌다고 단정 짓긴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무리뉴 감독과 선수단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과거 첼시와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시절에도 일부 주축 선수들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도 폴 포그바와 불화설로 지휘봉을 내려놓았다.

뉴시스

## 포항 송민규, K리그1 20라운드 MVP

강원전 1골 1도움...베스트팀을 100번째 슈퍼매치 승리한 FC서울



프로축구 포항 스틸러스 '특급 신인' 송민규가 하나원큐 K리그1 2020 20라운드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프로축구연맹은 15일 송민규를 20라운드 MVP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송민규는 지난 13일 강원FC와 정규리그에서 1골 1도움으로 포항의 3-0 완승을 이끌었다.

송민규는 전반 25분 코너킥 찬스에서 강상우의 크로스를 헤더로 마무리해 팀의 두 번째 골을 터트렸다. 후반 17분에는 강원 측면을 파고든 뒤 팔로세비치의 추가골을 도왔다.

베스트11 공격수 부문에는 전북 현대전 '멀티골' 주인공인 임원상(광주)을 비롯해 구스타보(전북), 세징야(대구)가 뽑혔다.

미드필더에는 송민규, 한세우(서울), 임민혁(광주), 팔라시오스(포항)가 자리했다.

수비수에는 강상우(포항), 연제운(성남), 황현수(서울)가 선정됐다. 골키퍼는 강현무(포항)다.

베스트매치는 3골씩을 주고받는 난타전 끝에 3-3으로 비긴 광주와 전북전이 선정됐다.

베스트 팀은 통산 100번째 슈퍼매치에서 승리한 FC서울이다. 서울은 1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수원 삼성을 2-1로 꺾고 상대 전적 18경기 연속 무패행진(10승8무)을 달렸다.

뉴시스

## '메이저 첫 우승' 이미림, 세계랭킹 21위로 꺾충

지난주 94위에서 73계단 상승...고진영 세계 1위 유지

생애 첫 메이저대회 우승을 거머쥔 이미림(30)이 세계랭킹 21위에 올라섰다.

지난 14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ANA 인스퍼레이션에서 연장 승부 끝에 짜릿한 역전 우승에 성공한 이미림은 15일 발표된 세계랭킹에서 지난주 94위보다 73계단 오른 21위에 자리했다.

이미림의 개인 최고 랭킹은 12위(2015년)

다. 세계랭킹 1위는 고진영(25)이 지킨 가운데 ANA 인스퍼레이션 준우승자인 넬리 코르다(미국)가 3위에서 2위로 한 계단 올랐다.

반면 2위였던 대니엘 강(미국)은 3위로 내려갔다.

세계랭킹 10위 안에는 고진영과 함께 박성현(27)이 4위, 김세영(27)이 7위, 박인비(32)가



9위에 이름을 올렸다.

또 김효주(25), 이정은(24), 유소연(30)은 11위부터 13위까지 자리하며 10위권 진입을 눈앞에 뒀다.